

DAC 환경네트워크 7차회의 및 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GSP(Global and Structural Policies) 합동회의 결과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는 날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의 새로운 과제들이 2008. 2.26-27일 DAC 환경네트워크 7차 회의 및 EPOC/GSP 합동회의에서 논의되었다. DAC에서는 동 회의결과를 2008.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예정인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LF)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바, 앞으로 기후변화의 개발협력과의 연계는 매우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분야에 대한 ODA 활용과 관련한 개발원조 정책이 미흡한 우리나라로서는 개발협력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하루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핵심요지

-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OECD-DAC는 개발과 환경의 연계 강화 및 개발협력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HLM에서 “Statement of Progress on the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2007.12월 발리 회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기술개발 및 이전, 자원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협력에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짐.
- 특히, 다수 참가국들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마련에 ODA활용 방안 모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

였으며, 기존 ODA 예산내에서의 추가 배분은 수원국의 원조 수요와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additional), 혁신적(innovative)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개최될 예정이며 정치적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을 근거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개최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함.

II. 관찰 및 평가

- **(전략적 환경평가 활용)** 개발원조 이행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프로그램/정책 차원에서 환경적 요소 반영을 평가하는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의 활용 필요성이 강조됨.

- 그러나 일본 등 일부 공여국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성공사례(good practices) 제시와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아크라 회의에의 반영)** 다수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이슈가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아크라 고위급회의 의제(AAA, Accra Action Agenda)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제2차 환경개발장관회의 개최 여부)** 일본, 스웨덴 등은 개발과 환경의 연계 강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제2차 환경개발장관 회의 개최에 적극적 지지를 표한 반면, 미국 등 일부 참가국은 개발과 기후변화와 관련 회의가 다수

- **(기후변화 관련 ODA 활용 방안 검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분야 ODA 활용과 관련한 개발원조 정책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이 아직 미흡한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G8 개발장관 회의, 아크라 회의, 환경개발장관 회의 등)이고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한 요구도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바, ODA 활용 또는 추가적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환경평가 활용 가능성 검토)** 다수 회원국들이 SEA 활용의 중요성과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SEA가 환경적 요소를 개발원조 정책에 통합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정책에의 반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SEA가 “best practices” 발굴 등 발전단계에 있고, 일본 등 일부 공여국도 SEA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원조 효과에 관한 아크라 회의 준비)** 현재 ENVIRONET을 비롯한 DAC 산하 작업반들은 각각 아크라 회의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바, 주요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조효과 작업반(EFF)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준비 작업에 적극 참여가 요구됨.

Ⅲ. 상세 논의 내용

1. ENVIRONET 제7차 회의 결과

-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DAC는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과제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개발협력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옴.

- 2006년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개발협력에 기후변화 적응 통합을 위한 선언'과 더불어 2007.12월 DAC-HLM에서 제안된 “Statement of Progress on the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을 2008.5월 HLM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며, 6월 핫카이드 G8 회의 및 9

월 아크라 회의에서도 발표할 계획임.

- 금번 회의에서는 2007.12월 발리 회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 및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협력에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짐.

- (적응과 감축) 발리 회의 결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노력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원과 더불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재정지원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재원조달을 위한 ODA 활용) 다수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한 ODA 활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 모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함. 특히,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와 관련하여 기존 ODA 예산 내에서의 추가 배분은 수원국의 원조 수요와의 불일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additional), 혁신적(innovative)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에너지 분야와 연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증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

- (기타 이슈)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기술이전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활용 및 벌목(deforestation) 문제 등을 논의함.

■ **(전략적 환경평가 활용 촉구)** 개발원조 이행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의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다수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도 SEA의 활용 방안 개발 필요성을 제기함.

- SEA는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프로그램/정책 수준에서도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원조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IDA, CIDA, 독일, 덴마크 등 다수 선진공여국들 및 개발원조 기관들은 원조 이행에 있어서 SEA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일본 등 일부 공여국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성공사례(good practices) 제시와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아크라 회의에의 반영)** 2008.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예정인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LF)의 기본 회의 구성안 및 회의 준비 일정 소개와 함께, 동회의에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환경관련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다수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이슈가 개발협력분야에서도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실제 원조이행에 중점을 둔 라운드테이블 논의뿐만이 아니라 고위급회의 의제(AAA, Accra Action Agenda)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 아울러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은 원조조화(harmonization)와 관련하여 공동의 환경평가 방안 마련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크라 회의를 통해 SEA의 중요성과 활용 확대를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타 이슈)**

- 환경 ODA에 대한 분류기준은 DAC 차원에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DAC 통계작성반은 "Rio Marker"(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관련 ODA)에 대한 통계 보고를 3년간('04-'06)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식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 등 7개 DAC 회원국의 미참여로 인하여 공식 분류기준으로의 도입 여

부는 추가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회원국들의 보고에 기반하여 ENVIRONET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관련 원조활동조사(survey of agencies' country-level activitie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대해 다수 참가국들은 설문조사의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동조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함.

2. ENVIRONET-EPOC/WPGSP 제3차 합동회의의 결과

- (작업반 활동 검토) EPOC 산하 3개 작업반(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 자연자원과 환경 관리 능력 배양, 수자원 공급과 위생을 위한 재원조달)은 2006년 환경개발장관회의의 이후 활동 결과를 보고함.
-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작업반은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The First Draft Guidance Document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시한바, 다수 참가국들은 동 초안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관련한 작업도 진행하기를 제안함.

- 수자원 공급과 위생 관련 재원조달 작업반이 제시한 재원조달 전략 개요 초안(Draft Outline of the Report on Financing Strategies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에는 우리나라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음.

■ (제2차 환경개발장관 회의 개최 여부)

- 일본, 스웨덴, EC 등은 개발과 환경의 연계 강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2009년 제2차 환경개발장관 회의 개최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함.
-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환경개발장관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만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회의가 다수 개최될 예정이며 정치적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을 근거로 유보적 입장을 표하였으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장관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젠다 확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 이에 따라, 사무국 측은 “soft agenda proposal”을 우선 제시하고 EPOC과 DAC의 고위급 회담 일정 조정을 통해 2009년 제2차 환경개발장관 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